1974년 6월 1일 발행 (Monthly) The Presbyterian Life (1965년 6월 18일 제 3종 우편물인가) 제149호

한국기독교장로회 회보

□ 주 요 내 용 □

권두언……안병무…1
강 단……박동화…2
보 고……3
선교협력협의회 공동성명서 ……5
여름성경학교 계획 ……7
투 고……배성룡…9
여신도회 편……10
소 식 ……11

발행인 편집인 : 이 영 민
인쇄인 : 이 승 하
발행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1965년 6월 2일 등록—라 492호
사서함 : 서대문 우체국 제54호
전화 74-3791, 진체 서울 47번
값 40 원 우편번호 120

□ 권 두 언 □

그리스도인의 싸움

안 병 무
(한국신학대학 교수)

1945년은 우리 민족의 해방의 해임과 동시에 民主的 自由를 국가의 목표로 출항한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중은 독립국가를 되찾은 감격에 도취했고 정치인들은 정권 싸움에 혈안이 되여 있었을 뿐 이 국가의 기본 방향이 될 自由에 대한 理念의 확립과 그것을 위한 투쟁을 등한히 하고 있을 때 북한 공산집단의 도발로 6.25의 처참한 민족적 비극을 당한 것이 벌써 世代를 거쳤다. 이것은 오늘의 青年들은 모두 6.25를 모르는 세대라는 말이다.

6.25는 한국 그리스도교도의 측면에서 볼때 史上 최대의 수난과 전환기다. 그것은 세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는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共産集團의 正體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 것이며 둘째는 日常時에 피(血)는 무엇보다도 짙다는 막연한 신념이 깨지고 구조화된 이데올로기가 보다 강하고 잔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계기요 세째는 自由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였다.

공산주의는 反 그리스도교적이라는 신념은 두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는 공산당과의 싸움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결투를 보았기 때문에 이 싸움에 온 그리스도인은 앞을 다투어 전선으로 나가 산화했는데 특히 당시의 그리스도교 청소년들이 자진해서 〈十字軍〉 정신으로 전선에 나갔다는 것은 특기해야할 일이다. 둘째는 공산집단과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다는 실존적 경험에서 이북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거의 전원이 南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다.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反共에 대한 입장은 전통화 되었으며 비록 6.25 이후 世代에도 이점에서는 뚜렷한 共同分母로 되어 왔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로써의 공산주의 正體를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분석 해부 계몽하는 일에는 등한히 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처해 있는 韓國民族이라는 공동체의 갈길을 위한 사상적 확립을 위한 투쟁을 등한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현금에도 공산집단과의 대결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正義가 실현되고 참된 自由를 구현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념이다. 이같은 신념을 위한 싸움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忠誠의 길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이같은 국가적 위기에 彼岸的 信仰만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자세라는 주장은 공산집단과의 대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국민인 우리의 임무를 도피하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없다.

〈6.25〉가 다시 와서는 안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집단과의 대결 속에서의 사상권 前線에 서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不義와 싸우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도록 한다.

신원안병무아키브
www.simone.or.kr